

본당 사목방향

“ 작게, 낮게, 함께 ”

주임 신부

고영일 프란치스코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GUANGZHOU

[다해]
2025년
3월 15일

제1079호

사순 제2주일

지난주 미사참례 115명

3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들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이 용서를 통하여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다름 안에서
각자의 은사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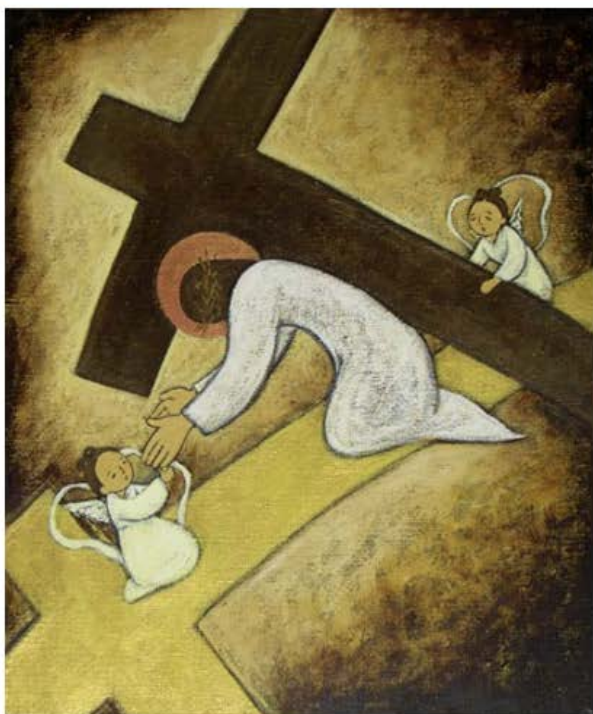
성 요셉 성월 기도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

- 우리 주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시요
정결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 간절히 청하오니
- 하느님께 빌어 주시어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또한 죽을 때에 저희를 지켜 주소서.
- ◎ 아멘.

(『가톨릭 기도서』<개정판>)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 안내



십자가의 길 기도는 아무 때나 바칠 수 있지만, 특별히 사순시기 금요일과 성금요일에는 마땅히 지켜야 합니다.

공동체 전체 십자가의 길 기도는 교중 미사 전에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 오후 3시, 석실 성당

3월 22일 오후 3시, 석실 성당

4월 5일 오후 3시, 석실 성당

4월 12일 오후 3시, 석실 성당

이 기간 총구역과 재무 데스크 업무도 십자가의 길 기도 후 시작됩니다.

주일의 강론

초막은 여기에다 짓는 게 아니야



송현성당 주임
이성호(요한) 신부

말씀 KEY WORD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시대에 모세는 모세오경의 저자로, 엘리야는 마지막 시대, 곧 구원의 시대를 알리는 예언자로 인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것은 마지막 구원의 때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구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② 사순 제2주일

루카복음으로 들은 오늘 말씀에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변쩍었다.”(루카 9,29) 마태오복음은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마태 17,2)라는 말로 예수님의 달라진 얼굴 모습을, 그리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얗졌다.”(마태 17,2)라는 말로 달라진 외관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 앞에서 “당신께서 참으로 성부의 빛이시라는 것을”(『가톨릭교회교리서』 555항 참조) 드러내신 것이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없다. 보통 사건이 아닌데도 말이다. 왜일까? 사실 요한은 복음의 시작에 이미 예수님께서 ‘빛’이심을 선포하였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요한 1,9) 그러니 복음서 안에서 굳이 이날의 일을 또 말할 필요가 없었으리라!

한편, 예수님의 빛나는 이 모습은 인간의 죄 때문에 기꺼이 받으실 수난과 죽음 이후에 되찾을 영광의 모습이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일이 있기 직전에,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루카 9,22)는 말씀으로 당신의 수난과 부활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고해 놓으신 상태였다. 이날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신 이야기도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루카 9,31)에 관해서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수난의 길은 당신 혼자서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루카 9,23) 따라오라시며 같이 가자고 하셨다.

그런데 잠에 빠졌다가 깨어난 베드로는 이 빛나는 모습을 보고 초막 셋을 지어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루카 9,33)라고 말한다. 초막이 무엇이던가? 초막의 구조는 지붕까지 있어서 사람이 장시간 거주하고 안주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싶다는 베드로의 말은 딴 건 모르겠고 지금이 좋으니 그냥 현실에 눌러앉고 싶다는 말이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에 담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날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즐거움에 그쳤던 베드로는 예수님 수난의 시간에 그 나약함을 드러내었다. 그는 수난과 십자가형이 있던 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나는 왜 주님을 믿는가? 어떤 마음으로 성당에 다니는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더 많이 벌어 안락하게 이곳 현세에서 안주하기 위험이라면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답한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1코린 15,19) 우리의 초막은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요한 14,2),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요한 14,3)고 하신 영원한 천상 거처에다 지어야 한다.

입당송

주님, 당신 얼굴을 찾으라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제 1 독서

<하느님께서서는 충성스러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다>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15,5-12.17-18

그 무렵 하느님께서 아브람을 5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6 아브람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7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칼데아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이다.”

8 아브람이 “주 하느님, 제가 그것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9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삼 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삼 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삼 년 된 숫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 너라.”

10 그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반으로 잘라, 잘린 반쪽들을 마주 보게 차려 놓았다. 그러나 날짐승들은 자르지 않았다.

11 맹금들이 죽은 짐승들 위로 날아들자, 아브람은 그것들을 쫓아냈다.

12 해 질 무렵, 아브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는데, 공포와 짙은 암흑이 그를 휩쌌다.

17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햇불이 그 쪼개 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18 그날 주님께서서는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 강에서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 님 은 나 의 빛 나 의 구 원 이 시 다.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라? ◎

○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 주소서. 자비를 베푸시어 응답주소서.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신 주님, 당신을 생각하나이다.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

○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시고, 분노하며 당신 종을 물리치지 마소서. 당신은 저를 돕는 분이시옵니다.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

제2독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3,17-4,1

17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이들도 눈여겨보십시오.

18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9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20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21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키실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4,1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며 화관인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환호송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졌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9,28ㄴ-36

그때에 28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29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었다.

30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31 영광에 싸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32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33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
는지도 몰랐다.

34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35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
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36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
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봉 헌 513, 211

영성체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
어라.

성 체 169, 172

파 견 72

■ 부활 판공 성사 안내

회개하고 보속하는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보시어 기쁘고
은총 가득한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판공성사표는 배부하지 않고, 부활 제2주에
구역방 통해 확인합니다.

✦ 교적을 옮겨오지 않은 분들도 이 기간 성사를 보시고,
반드시 해당 교적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11기 사목위 활동 종료

총회장 : 강창구 베네딕도

총무 : 김신혁 안드레아

서기 : 엄윤경 루피나

총구역장 : 오주연 엘리사벳

전례위원장 : 황영선 마틸다

청소년교육위원장 : 진혜영 루시아

홍보위원장 : 고재걸 바오로

선교위원장 : 전준영 알렉산드로

시설위원장 : 윤기영 사도요한

재무위원장 : 전은욱 테아

그 동안 헌신적으로 봉하해 주신 11기 사목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천신회

25년 1분기 모임

일시 : 3월 30일(일요일)

장소 : 광저우 연화산

골프장

뒷풀이 장소 : 추후 공지

참석문의 천신회장 :

김득수 요셉

186-2012-1143

총무 :

전준영 알렉산드로

134-2677-7396

행사 참석 신청은
단체방에서 별도 안내 후
진행하겠습니다.

■ 반모임 일정

◆1구역

오늘 미사 후

윤기영 사도요한 사무실

◆ 2구역 1반

3월 22일(토) 미사 후

석실 사무실

◆ 2구역 2반

3월 17일(월) 오전 11시 30분

사제관

◆ 3구역 2반

3월 19일(수) 저녁 7시

강범규 빅토리노*진혜영 루시아 가
정

◆ 3구역 3반

3월 21일(금) 오전 11시

예카페

3월 22일 본당 일정 안내



본당 아버지의 날

성 요셉 대축일을 기념하여
본당 아버지의 날을 지냅니다.

미사 후에는 형제님들을 위한
친교 모임도 예정되어 있으니
형제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친교 식사 : 미사 후 6시 미락



수험생 미사와 안수식

이날 미사는 수험생을 위한 지향을
함께 봉헌하고,
신부님의 안수식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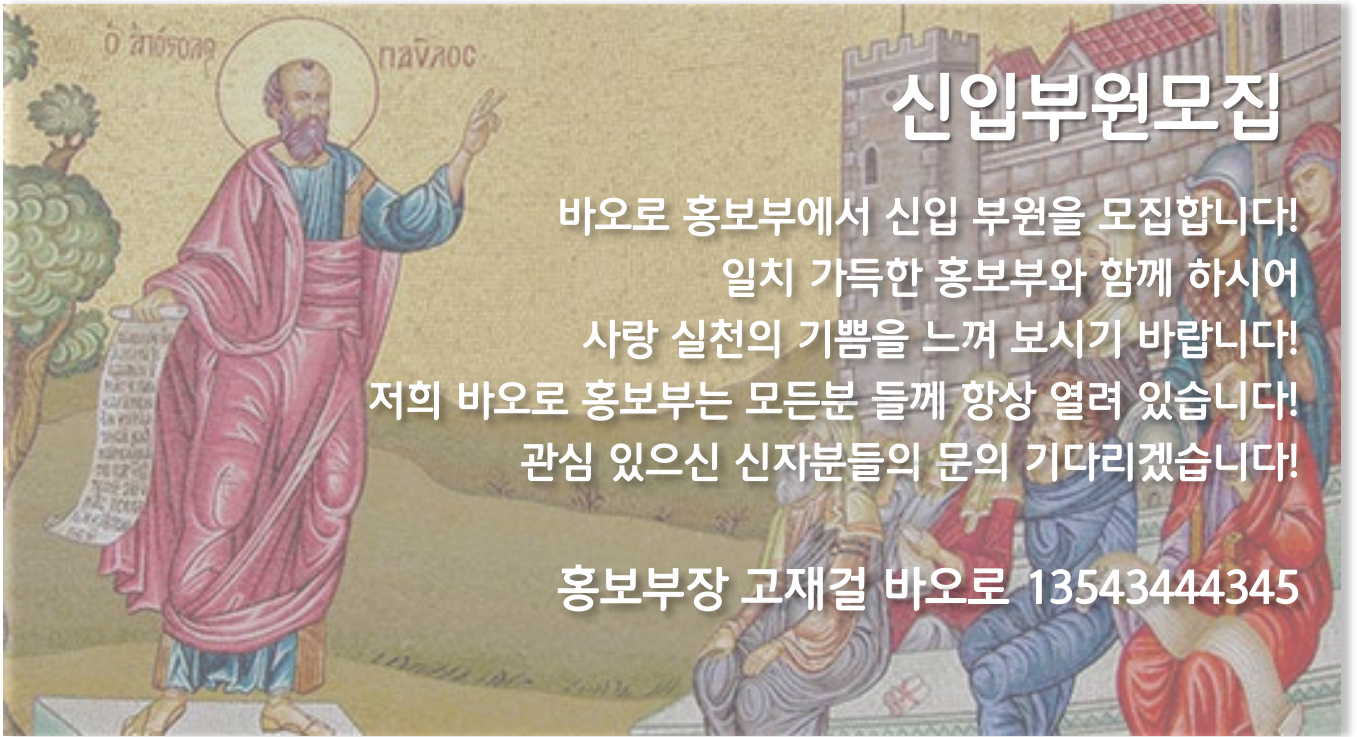
수험생과 부모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 판공 성사

동관 본당 장천주 다니엘 신부님께서
방문하시어 미사 시간 내내
부활 판공 성사를 주십니다.

교우 여러분들을 '바로로 홍보부'로 초대합니다!



신입부원모집

바로로 홍보부에서 신입 부원을 모집합니다!
 일치 가득한 홍보부와 함께 하시어
 사랑 실천의 기쁨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바로로 홍보부는 모든분 들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신자분들의 문의 기다리겠습니다!

홍보부장 고재걸 바로로 13543444345

홍보의 주보성인 바로로 사도

천주교 광주 한인공동체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을 수행하며
 서로 간의 사랑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바로로 홍보부가 있습니다.
 한결 같은 일치가 돋보이는 저희 바로로 홍보부의 일원이 되어주세요!



즐거운
홍보부 모임

홍보부에서는 주보제작, 홍보 책자 발행, 사진 및 동영상촬영,
 기념 영상제작, APP관리, 강론 녹취 등의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 교우업체 광고주 ~님 ❖
 더욱 번창하시는 2025년 되시도록
 은총이 함께 하는 주보 광고! 열렬히 모집합니다.
 많은 문의, 신청 바랍니다.

APP&주보 고정 및 개인 광고 문의, 신청
 홍보부 고재걸 바로로 13543444345





2025년 교무금 약정을 시작합니다.

찬미 예수님,
 교우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히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금주 토요일부터 2025년 교무금 봉헌 약정서를 받습니다.
 새해 교무금 약정에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봉헌 생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해 봅시다.

- 1 늘 하느님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 2 내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 3 공동체의 운영을 위해 교무금을 책정합니다.
- 4 매월 잊지 않고 교무금을 납입합니다.

교적이 한국에 있고, 가족이 한국에 별도로 교무금을 내고 계시더라도
 광저우 공동체에도 일정 금액의 교무금을 책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무금 납입은 가톨릭 신자의 의무이지만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발적인 봉헌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4. 12. 9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주임신부 고영일 프란치스코, 총회장 강창구 베네딕토

지난 주 교무금 납부자 (토요일 정오 이후 위챗 수령은 2주 후 게재. ㄱㄴㄷ 순)

강창구 베네딕토, 고재걸 바오로, 구본상 사도요한, 김득수 요셉, 김언정 율리아나,
 김용철 예로니모, 김은숙 아가다, 박보희 요세피나, 서경현 솔루로르, 신보식 안토니오,
 신지수 라자로, 심률 아셀라, 윤종만 요셉, 이영현 베드로, 이지훈 마태오, 임승욱 마르티노,
 임준홍 루카, 최희정 안젤라, 차준연 안드레아

※ 교우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납부 방법

1. 미사 전 현금 납부 - 성당 입구 재무데스크

2. 위챗페이 납부 ID akim1231(김은숙 아가다) / thea721219(전은욱 테아)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가톨릭 신자의 6대 의무를 아십니까?!

① 미사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 미사

✓ 의무 축일 미사

-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
- 부활 대축일 (3-4월 : 날짜는 매년 달라짐)

② 금육과 단식

- 금육 : 모든 금요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 단식 : 재의 수요일, 성금요일
- ☞ 금육과 단식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선으로 이어져야 함.

③ 적어도 1년에 한 번 고해 성사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사순 시기

④ 적어도 1년에 한 번 영성체

-부활 대축일

⑤ 교무금

교회 유지비 부담의 의무이며, 매년 일정 금액을 약속하여 납부한다.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의 본당에 교무금을 책정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⑥ 교회의 혼인법 준수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아침 / 저녁 기도는 신자의 기본입니다!!

우리 가정의 교무금 상황을 점검해볼까요?!

‘교무금’은 ‘교회 유지비’입니다.

신자들은 하느님을 경배하고, 선교와 사목 활동,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선 활동, 교역자들의 생활비 등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울 의무가 있다.

(교회법 222조)

“신자들은 주교회이나 교구의 규정에 따라 교무금, 주일 헌금, 기타 헌금과 모금 등으로 교회 운영 활동비를 부담해야 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165조)

교무금은 교구와 본당 운영과 사목, 선교, 자선 사업, 교회 시설 유지와 사제 및 교회 직원 생활비 등에 사용됩니다.

교무금은 개인이 아니라 신자 가정 단위로 매달 얼마를 낼 것인지 책정합니다.

가정 총수입의 얼마를 교회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인데 통상 ‘30분의 1’ 즉 한 달 30일 중 하루 수입금을 하느님께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삼십일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외 공동체의 특성상, 가족이 한국에서 교무금을 납부하더라도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본당에도 일정 금액 교무금을 내 주어야 합니다.

저희 공동체도 교우 여러분들의 교무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무금은 책정하셨나요?

‘아직’이시라면, 재무데스크로 가셔서 책정을 부탁드립니다.

가족이 한국에서 교무금을 내고 있는데요?

그러시더라도 내가 머물고 있는 본당에도 책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매월 일정금액을 책정하시어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무금 납부는 깜박하지 않고 잘 내고 계신가요?

교무금은 월1회 정기 납부가 원칙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한 달이 금방 지나가지요.

잊지 마시고 꼭 매월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너무 바쁘신 분들은 미리 선납도 가능합니다.

교무금을 책정만 한 채 납부를 잊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납부 부탁드립니다.

최첨단 의료 설비
최고의 한국의료진 상주진료

광저우 은해치과



3D와 CT를 확인하여
안정된 위치에 식립하는 **임플란트**
소아 / 청소년 / 성인교정

은해치과는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교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잇몸 성형 | 라미네이트 | 올세라믹 크라운 심미보철

깨진 치아 때문에, 변색된 치아로 인해
너무 작아 어색한 왜소치아로
자신 있게 웃지 못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은해치과에서
자신 있는 미소를 찾아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병원 - 은해치과

예약 및 응급전화 **185-2007-0880**

广州市白云区同和广州大道北2170-2172号
地铁：同和站C出口 南方医院方向 50m前方
同和 지하철역 C출구 남방병원 방향으로 50m

 HOURS
진료시간

【진료안내】 화~토 09:00 ~ 18:00
【휴진안내】 매주 월요일/일요일



广州大道北

Y 同和站C出口
云东小区
● 银海口腔



金石酷酷

진스쿠쿠

따뜻한 한끼의 소중함!

장영심 모니카

위챗 eelvis123

135-8037-0511

番禺大石朝阳东路162号



소문내주세요

미락

백운구
웬징루에
자리잡았습니다!

OPEN

했어요!

가격은 저렴하게
더 신선하고 더 푸짐하게
모시겠습니다!

광어회 190 / 찰광어 260 / 방어회 270

웬징루

■ KFC

■ 풍무웬성

■ 중화루

미락



오늘의 숙성 **모듬회**
회정식 전문점
회 포장 가능합니다.
점심저녁 영업합니다



위챗추가
예약문의
13826129063

휴우

h y u w o o

주장신청 지역에 위치한 아트와 플라워 아뜰리에, 휴우입니다.
휴우는 미술 수업과 프렌치 스타일의 꽃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꽃 수업 >

- 기초 과정
- 심화 과정
- 전문가 과정

<미술 수업>

- 킨더반
- 저학년 (초1~초5)
- 고학년 (초6~고등)
- IB art
- IGCSE art

<성인을 위한 미술수업>

- 서양미술사반 '엄마가 소개하는 오르세'
- 취미 미술반

문의는 위챗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위챗 아이디 alicia-luby

문의 상담 186-2041-3347



SBC SC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민간네트워크 선정기업
kotra 코트라 지정
청산 컨설팅 수행 기관 선정



MY컨설팅



여러분 곁에 필요한 전문컨설팅 그룹이 있습니다!

2004년 창립한 저희 마이컨설팅은 광저우시 공상국의 허가를 득한 전문컨설팅 기업으로서, 광동 성외상투자기업협회 회원이며, 광동성 재정국으로부터 “대리기장허가”를 받은 전문기업입니다. 지난 10년 이상 축적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서의 경영활동상 반드시 필요한 전문지식 전파 및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기업설립 전에 필요한 사항은 물론 설립이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 외/내자법인
- 홍콩법인
- 법인청산
- 경영범위변경

거류증신청

- 취업비자신청
- 가족비자신청

대리기장

- 소규모/일반납세자
- 수출관세환급
- 연말회계결산보고
- 각종절세방안자문

전문허가

- 식품경영허가증
- 수출입권한 신청
- 상표등록

▶ 최근 교민들의 비자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인설립 + 거류비자 신청까지 **特惠套餐**

▶ 한국전문가 직접상담 해드립니다.
(Tel:13682288114 Wechat: fudan100)

전문 거류비자 대행

주의사항

최근 중국 관련기관에서 외국인 거류허가 심사가 엄격해 지고 있으며, 허위자료를 이용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자 본인은 물론, 해당법인까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신청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안심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합니다



MY컨설팅 清德投资管理(广东)有限公司 무료상담전화(한국인) 136-8228-8114

TEL: 020) 3803-2588 / 3803-2511

ADD: 广州市天河区珠江新城华夏路49号津滨腾越大厦北塔1305室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GUANGZHOU

미사 시간 : 토요일 오후 4시 석실성당
일요일 저녁 7시 석실성당 내 경당
수요일 오전 10시 석실성당 내 경당

미사 장소 : 广州市 越秀区
一德中路 旧部前 56号 石室教堂

+ 고해성사 : 오후3시 반부터
+ 유아세례 :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3시
[매월 첫째주까지 구역장에게 신청]

*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APP
gzkorcc.com

✓ 설치전에 구버전 성당APP은 삭제 하시고 설치해주세요!



주보발행 :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바오로 홍보 위원회

APP&주보 고정 및 개인 광고 문의,신청
바오로 홍보 위원회 - 고재걸 바오로13543444345